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결단

-복음으로 여는 에스더-

에스더 4:16, 사도행전 20:24

정 윤돈 목사님

* **에4: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 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 **행20: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헌신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육 간에 절대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 생명 결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에도 어려운 세상과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오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진정한 절대계호와 미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통해 도전하고 싸워 응답받을 구체적인 레마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건 결단을 하였다.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을 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으로 결단한다. 그걸 작심이라고 하는데 그건 3일이면 끝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작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삶의 철학과 영과 혼에 각인된 것이다. 강단의 메시지가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에 각인되어서 실천으로 나온다.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영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적 결단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 없이 성공하는 세상 사람도 많다. 그 사람들은 몇 백조를 벌더라도 이 땅의 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 안에서 결단한 축복은 영적인 것이고, 사탄을 꺾고 운명을 완전히 해결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영원히 남는 축복을 남기는 언약의 여정이다. 에스더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왕 앞에 그냥 나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기도하고 먼저 말을 한다. 금식한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결단하기 전에 육적인 것 때문에 지는 사람들이 많다. 먹고 사는 것, 집, 돈, 직장생활 때문에 영적인 것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중독, 술, 담배, 마약, 인간관계, 기분 등 때문에 영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 아니다. 영이 살아야지 혼과 마음과 우리의 삶도,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순서를 역으로 하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 금식이다. 내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닌가 잘 모르겠으면 3일간 금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한 것이다. 아브라함도 분명 결단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지만 헛갈리는 것 같으니, 스스로 결단내리기 위해서 나는 영,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결단내리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 지식, 아내, 집, 남편 그런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이면 절대 안 된다. 그 결단을 내려라. 나는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이 결단이 내려져야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시작되면 마귀와 저주가 꺾인다. 그런 결단 없이 살아가면 결국 다 ‘나’다. 그것을 깨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정신병자처럼 살게 된다. 마귀에게 묶여 끌려가는 것이다.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신본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끌려 다닌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 다닌다. 아닌 척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생각보다 12시간 금식 못하는 사람이 많다. 안 해본 사람은 해봐라. 하나님 나는 육, 세상, 돈, 지식, 집안, 먹는 것, 입는 것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결단을 해야 한다. 목사들도 그것을 못한다. 그 사람은 절대 영적인 것을 이길 수 없다. 먹는 것, 입는 것, 돈을 못 이기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닌 것은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안다. 나는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과 사탄이 안다.

오늘 에스더의 금식은 하나님과 사탄 앞에 인정받은 금식이었다.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는 것은 다시 저주로 빠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면 한 대 더 맞는다. 오직 말씀과 강단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어떤 사람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한다. 그런데 내 철학과 인생, 삶으로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보니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여러분의 문제와 고민이 있는데 고민이 하나도 안 된다. 저는 고민하는 척하는 것뿐이니 하나님이 내 안에 시공간을 조절해서 주실 응답이 보이니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주시는 이유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으니까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모습을 통해 생명 건 결단을, 또 사도 바울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다. 선교현장에서 오래 사역하시는 분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걸까? 생각이 든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 건 결단을 한 것이다. 그것을 안 하면 선교현장에 갈 수 없다. 그러면 어려우면 돌아와 버린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선교현장에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생명 건 결단을 한 것이다. 여러분도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생명 건 결단을 하기를 바란다. 이번엔 인도를 갔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오셨더라. 구원의 길을 열심히 적으시는데 오히려 남자 선교사님은 못 적으시더라. 사모님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보니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누렸던 것이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느낀다고 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 사람을 죽이고 죽여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혼에 각인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지 않으면 그 저주와 재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는 것이다. 세상적인 결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세상적인 결단만 해도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영원히 남는 영적인 결단과 결심을 날마다 해나가야 한다. 저는 50대 후반이 되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운동으로 두었다.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지속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나를 위해 하면 한계가 온다. 한 생명이 천보다 귀하다.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세상에 천년가는 기업이 없다. 우리의 결단, 기도, 전도,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결단의 말을 하고 있다. 세상적으로 말해보아도 거저 기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명 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생명 건 결단을 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개 같이 하늘보좌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일론 머스크도 사업을 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오랜지만 먹으며 살아보며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하고 결단한 후 사업을 시작했다. 그 결단이 어마어마한 우주시대를 열었다. 어느 날 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다. 우리는 완전 언약되신 그리스도, 참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다.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하시기를 축원드린다.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 잘되는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조금씩이라도 새로워지기를 축원드린다. 그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로 조금씩 바꾸고 거듭나게 해야 한다. 그 인물이 오늘 나오는 모르드개와 같은 인물이다.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이다.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약용하지마라. 약용을 하게 되어도, 하나님보다 내가 육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마귀의 울무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 그 빛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흑암에 있으면 안 보인다.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원드린다.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 밤새 노는 건 가능한데 설교 때는 졸리다. 안에 흑암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복음 안에 있으면 말씀을 계속 듣고 싶고 계속 영적인 것을 듣고 싶다. 에스더서를 기록한 사람은 모르드개라고 생각하고 있다. 에스더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은 페르시아(바사)의 네 번째 왕인 아하수세르 왕의 통치기간(21년간, BC.486-465)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왕비로 다시 세운 왕이 아하수세르 왕이다.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기록하고 있다.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이다. 고레스 왕의 무덤은 지금도 있다. 터키나 이란 쪽으로 가면 버스타고 몇 시간 보고 돌아보고 오고 그런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루즈여행인 것 같다. 성경에 나오는 도시를 다 돈다고 하더라. 다려운 선교사님이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 고레스 왕은 강력했던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었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린 왕으로도 유명하다. 고레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인물이 캄비세스이고, 캄비세스 왕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을 크게 확장시킨 인물이 다리우스 왕이다. 다리우스 왕은 그리스와 두 차례 전쟁을 치른 왕으로 유명하고 그 두 번째 전쟁이 마라톤 전쟁(2차 페르시아전쟁)이다. 여기서 마라톤이 나온 것이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었던 거리로 마라톤이 만들어졌다. 이 다리우스 왕의 아들이 오늘 에스더서 1장부터 등장하는 아하수세르 왕이다. 아하수세르 왕을 일반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부르고 있다. 크세르크세스 왕은 아버지인 다리우스 왕이 실패한 그리스 정복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제3차 페르시아 전쟁

을 일으켰던 인물로도 유명하다. ‘300(2014, 제국의 부활)’이라는 영화는 에스더의 남편인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의 도시국가 스파르타와 전투를 벌인 사건을 기초로 영화로 만든 작품이다. 즉 영화 ‘300’은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테르모필라’협곡에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핵심내용이다. 여기서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왕이 바로 아hashu(아하수)로 왕이다.

1. 큰 첫 번째에서는 에스더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다.

1장에서 아hashu(아하수)로 왕이 즉위 3년에 127도의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역사에 의하면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나와 있다. 이 잔치는 약 2년 후에 있을 전략적인 파티였다고 보고 있다. 이때 아hashu(아하수)로 왕은 와스디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 와스디를 불렀지만 와스디 왕후는 왕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와스디 왕후는 폐위가 되었고 뒤를 이어 모르드개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었다. 역사를 보면 인간이 만들고 결정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작정하고 예정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운행이 담겨져 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현장에 가서 복음, 기도, 빛으로 모든 사람을 이기고 꼭 필요한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성경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다. 이때 페르시아 제국에는 아hashu(아하수)로 왕의 깊은 총애를 받고 있던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고관들은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유독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개였다. 모르드개도 고집이 있고 성격이 간직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다. 마음 속에 절을 안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결국은 모르드개가 총리의 자리에 이르고 부림절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인도따라 승리하기를 바란다.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자라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 될 수 없다. 실수를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손해가 손해가 아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응답이 응답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좋은 일이고 응답이 되어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것을 위해 성령충만 받고 내 영이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보화가 보일 정도로, 성령충만, 기도충만, 말씀충만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중요하다. 그때 우리의 귀신이 꺾인다. 영혼이 치유를 받는다. 하만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모르드개가 유대민족임을 알고 모르드개 뿐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허락까지 받고 전국에 공포를 하였다. 이때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왕에게 말하여 유대민족을 구할 것을 전달하였다. 에스더서 4장 14절을 보면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모르드개는 전달하였다.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된다. 왕은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온 에스더에게 금술을 내밀어 에스더를 환영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한다. 이때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고 왕과 하만만 잔치에 청하게 된다. 왜 그랬을까? 왕과 1:1상황이 아니었을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주변인이 모르드개를 나쁘게 말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과 하만, 에스더 본인만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이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란다. 전도도 선교도 복음도 사업도 다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여는 것이고 닫으시면 닫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인도따라 여러분의 전문성을 세계화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1천만 제자, 237, 5000종족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후대는 이런 응답 누리를 축원드린다. 그날 밤 아hashu(아하수)로 왕은 웬지 잠이 오지 않아 궁중일을 들던 중 모르드개가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을 고발하여 왕을 구한 장면을 듣게 된다. 왕은 모르드개에게 어떠한 상을 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모르드개를 20m의 장대에 달아 죽이고자 하는 허락을 받기 위해 왕 궁정 뜰에 와 있는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는다. 하만은 오히려 자신이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개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우고 자신이 말을 끌고 가면서 왕에게 존귀함을 입은 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돌아온다. 하만은 이 일이 있은 후 다시 에스더가 준비한 만찬에 참여하였다. 이때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나고 묻자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왕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 에스더 7장 5절에 보면 “아hashu(아하수)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라고 왕은 말하였다. 이 때 에스더는 다음과 같이 왕에게 말한다. 에스더 7장 6절을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라고 말과 말한다. 결국 하만은 죽고 유대민족은 멸망을 받기로 제비뽑은 날 즉, 부림일에 구원을 받게 되어 그날을 ‘부림절’이라 부르고 지금도 유대민족은 부림절을 가장 성대한 명절로 지키고 있다. 이 부림절은 사탄의 계획을 박살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2. 큰 두 번째에서는 위기 속에서 승리하였던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신앙의 비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에스더의 믿음과 결단이다.

1) 에스더는 부모를 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신을 아름답게 준비한 하나님의 딸이었다. 어릴 때부터 결단하고 준비하여, 때가 되었을 때 영적 스승의 말에 순종한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는 것이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2) 에스더는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에 집중 할 줄 아는 기도의 여인이었다. 기도를 결단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겠다고 미리 결단을 한 것이다.

3) 에스더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성령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지닌 성령충만한 여인이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조금에서 나온다. 조금하지 않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성령인도를 받아야겠다는 결단을 미리 한 것이다. 그래야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넘어지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습관화된 행동이 중독되어 체질화가 된다. 그래서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습관이 나온다. 그것은 이길만한 영적 충만이 안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약을 끊은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 마음에 마약하면 완전히 내 인생 망한다는 철학이 생긴 사람들이 많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끊은 사람들이 있다. 영적으로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마음과 생각, 중독된 내 육신도 이겨버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이 사람들은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지는 것이다. 그래서 24시간 안할 수가 없다.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르다. 내가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세면, 계속 예배를 안 드리면 계속 돌아간다. 그러나 우리 후대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 기도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잘 시달리지 않아 금방 타락하고 멀리 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미리 기록하고 온전하게 나를 가꾸고 만들어야 한다. 세상 나가면 다 육적인 것이다. 정신 못 차리면 바로 거기에 빠진다.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시대에 오염되지 않고 시대를 바꾸는 램네티가 되기를 바란다.

4) 에스더는 자신을 말씀으로 양육한 모르드개에게 순종할 줄 아는 제자였다. 제일 어려운 것이 목사님과 부모님 말씀, 직장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다른 목사님 말씀은 은혜를 받는데 담임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안된다. 마귀의 방법이다. 가까운 데부터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에스더는 그렇지 않다. 말씀양육자에게 순종했다. 그 사람의 인격은 관계였다. 나는 더 큰 응답을 받을 사람이고, 램네티이고 후대이기 때문이다. 남은자이기 때문이다. 그 응답을 받아야지 사람에게 따라 움직이고 시험 들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하다. 하나님이 그 정도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지 않으셨다.

5) 결국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과 복음을 위해 생명 건 헌신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여인이었다. 에스더는 순간순간 영적인 바른 결단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현장을 살린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2) 다음은 모르드개의 믿음과 결단이다.

1) 모르드개는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사랑한 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다. 간간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라를 살리는 결단을 하고 결국 모르드개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서 유대민족을 보호해 주었다. 에스더 10장 3절을 보면 “유대인 모르드개가 아hashu(아하수)로 왕의 다음이 되고(총리)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모르드개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결단한 사람이었다.

2) 모르드개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 본 믿음의 사람이었다. 권력을 가진 하만에게 아무하지도 않았고 왕비가 된 에스더도 의지하지 않았다. 인간적인 정치를 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과 귀신의 역사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도 응답하신다.

3) 모르드개는 거대 제국을 다스릴만한 지혜와 실력과 인격을 갖춘 리더자가 되었다. 그 결단을 한 것이다. 리더십이론에는 X형 인간과 Y형 인간이 있다. X형 인간은 수동적인 사람이다. 대부분의 99%의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며 살아간다. Y형 인간은 자발적인 사람이다.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100배의 일을 한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복음형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 목숨 걸고 다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KFC회장도 65세 때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했고, 77세에 민속그림을 그려 화가가 된 사람도 있다. 96세에 책을 출간하여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도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복음적 결단이 중요하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에스더와 모르드개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에스더서를 통해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의 결단을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복음화를 주도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